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23, No. 127, pp.143-178
<https://doi.org/10.29212/mh.2023..127.143>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북한군 제8사단의 제4차 전역 준비와 수리산-마산 전투

박희성 | 고려대학교 역사연구소 연구원

- 목 차
1. 서론
 2. 북한군 제8사단의 재편성과 제3차 전역 투입
 3. 북한군 제8사단의 제1차 서울방어전투
 4. 결론

초 록 6·25전쟁을 연구하는 다양한 방법 중 북한군 연구는 필수이다. 하지만 사료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연구 역시 어려운 상황이다. 그동안 공식간행물에서 북한군의 작전을 서술하였으나, 많은 공백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북한군의 세부적인 모습을 살피는 것은 연구의 기초가 되며,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기도 하다.

이 논문에서는 북한군 제8사단을 살폈다. 제8사단은 1950년 7월 증편한 뒤, 안동과 신녕 등 중요 전투에 참가한 중요 사단이었다. 그리고 후퇴 후에도 청천강 일대에서 지연전을 펼친 사단이었다.

제8사단은 초산에서 재편성을 하였다. 장비 및 화기는 부족했지만 병력은 충원을 거의 완료하였고, 단기 교육훈련을 통해 전투력을 높였다. 재편성을 마친 제8사단은 이른바 '제2차 공격'을 위해 1950년 12월 남하를 위한 행군을 시작하였고, 1951년 1월 초에 한강 이남에 도착하였다. 행군 간에 평양, 해주, 연안 등지에서 전투를 수행했으며, 주민들에 대한 민사작전도 실시하였다. 그리고 1951년 1월 말과 2월 초까지 수리산과 마산에서 중국인민지원군과 함께 UN군을 상대했다.

이러한 북한군 사단급 이하 부대에 대한 세부적인 기초 연구는 당시 북한군이 수행한 전쟁수행방식을 하나씩 밝혀나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6·25전쟁에 대한 연구는 더욱 내실화될 것이다.

주제어 : 6·25전쟁, 북한군, 조선인민군, 제8사단, 서울방어전투, 수리산, 마산

(원고투고일 : 2023. 4. 9, 심사수정일 : 2023. 5. 18, 게재확정일 : 2023. 6. 5.)

1. 서론

6·25전쟁을 이해하는 데는 다양한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그동안 정치, 사회, 국제관계, 인물 등 여러 분야에서 연구가 진행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전쟁수행의 주체인 북한군 관련 연구는 부족한 상태이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나 육군 군사연구소 등의 여러 공간사에서 북한군의 작전이 다뤄졌으나, 사료확보의 한계로 인해 서술에서 많은 공백이 있었다. 북한군은 국군 및 UN군의 작전을 설명할 때 상대 적군으로 대략적으로 설명되거나, 중국인민지원군 참전 이후에는 중국인민지원군 위주로만 기술되면서 여러 부분에서 누락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다.¹⁾

이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북한군 부대는 제8보병사단이다. 북한군 제8사단은 6·25전쟁 개전 시 최초 투입된 사단은 아니었지만, 초기인 1950년 7월 초 증편된 이후 주요 축선에 투입된 중요 사단이었다. 북한군 제12사단이 경북 북부의 핵심도시인 안동을 점령하는 데 함께하였고, 이후에는 의성-신녕 축선으로 진출하여 낙동강방어선의 핵심 지역인 영천을 위협하였다. 국군 및 UN군의 북진으로 인해 후퇴한 후에도 청

1) 물론 이러한 공백은 개인 연구자들이 채워나가고 있긴 하다. 육사 교수로 근무했던 군인 김광수와 장성진, 그리고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연구원인 김선호가 대표적인 연구자이다. 이 연구자들의 기존 연구성과 포함 북한군 관련 연구성과 정리는 다음을 참고하면 된다. 박희성 “북한군 제2보병사단의 6·25전쟁 초기 작전-전투일지, 함흥에서 낙동강까지,” 『군사』 110호(2020); 박희성, “북한군 제105땅크사단 65기보련 76mm대대의 참전준비와 전투일지,” 『한국군사학논총』 제11집 제1권(2022).

천장 지연전 최일선에 배치되었고, 강계 및 초산에서 국군과 교전한 주요 부대였다. 북한군 제8사단에 대한 연구시기는 1950년 말 초산에서 재편성한 이후부터 제2차 공격²⁾을 위해 제3차 전역³⁾ 투입 및 제4차 전역에서의 제1차 서울방어전투(수리산 - 마산)까지이다.⁴⁾

앞에서 언급했듯이 해당시기에 대한 국내 연구는 미흡하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의 공간사에는 단편적인 서술만 되어 있는데 특히 수리산과 마산전투는 분량이 간소할 뿐만 아니라 사실관계도 일부 맞지 않게 서술되어 있다. 국가보훈처의 영국군 관련 공간사⁵⁾에서는 수리산 - 마산 전투가 아예 다뤄지지도 않고 있다.

이런 상황을 조금이라도 메울 수 있는 직접 사료는 미군 노획 문서인 RG242이다. 이는 북한군의 세부적인 모습을 볼 수 있는 사료로써 북한군이 직접 작성한 문서라는 점에서 그 의미는 크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도 노획문서를 주된 사료로 활용했으며,

2) 북한군은 1950년 6월 25일 남침을 제1차 공격이라고 칭했고, UN군과 국군에게 밀려 압록강·두만강까지 후퇴하였다가 1950년 말 중국인민지원군의 개입으로 다시 남진하는 시기를 제2차 공격으로 칭했다. 이 논문에서는 기준이 북한군이며, 재남진한다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해당용어를 일부 사용하였다.

3) 전역(戰役)은 전략적 필요에 따라 일정한 구역과 시간 내에 수행되는 일련의 전투들의 총합을 말한다. 중국인민지원군은 1950년 10월 19일 참전한 이후, 제1차 전역(1950.10.25. - 11.5.), 제2차 전역(1950.11.7. - 12.24.), 제3차 전역(1950.12.31. - 1951.1.8.), 제4차 전역(1951.1.25. - 4.21.), 제5차 전역(1951.4.22. - 6.10.)까지 총 5차례의 전역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1951년 6월 11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는 '제2단계'라고 칭하고 있다. 출처 : 바이두 백과 (<https://baike.baidu.com>) 이 논문에서는 고유명사로 사용될 경우에는 '전역'이라는 단어를 그대로 사용하였고, 나머지는 내용에 맞게 '공세'라는 표현으로 수정하였다.

4) 북한군은 서울방어전투를 2단계로 구분하였다. 제1차 방어전투는 한강 이남인 수리산 - 마산에서 수행한 전투이며, 제2차 방어전투는 서울 - 고양을 중심으로 한 한강선방어전투이다. 이후 북한군 제8사단은 임진강방어전투까지 수행하였다. 이 논문에 다루지 못한 서울방어전투(서울 - 고양)와 임진강방어전투는 후속 연구로 진행 중이다.

5) 국가보훈처, 『영국의 6·25전쟁 참전사』, 2016.

많은 양을 하나하나 정리하는 작업을 거쳤다. 다만 제8사단의 모든 소속 부대의 문서와 해당 시기 전체 문서를 확인하지 못한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하지만 그동안 간과해 왔던 북한군의 세부 모습을 살피는 것은 북한군을 다루는 연구의 기초가 될 것이며, 나중에 하나의 완성된 연구를 위한 중요한 퍼즐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

2. 북한군 제8사단의 재편성과 제3차 전역 투입

가. 부대 재편성 배경과 결과

북한군 제8사단은 3개 보병연대와 1개 포병연대, 그리고 사단직속 부대로 구성되었다. 제8사단은 1950년 7월 초 강릉에서 제1경비여단을 기간으로 하여 증편된 사단으로 7월 10일 최초 작전에 투입되었다. 문경 - 예천 방면에 투입되었고 제12사단과 함께 안동을 점령하였다.⁶⁾ 8월 공세 시에는 안동 - 의성 - 영천 축선에 최초 투입되었지만, 의성에서 피해 입은 뒤 의흥 - 신녕 선으로 변경하여 8월 말에는 조림산 - 화산 선까지 진출하였다. 9월 초 신녕 점령 후에는 영천으로 돌파구를 확대하기 위해 화산 일대를 공격하였으나, 신녕에서 좌절되었다.⁷⁾ UN군의 인천 상륙작전과 반격작전이 시작되자, 9월 21일경 재편성의 기회를 갖고자 최대 격전지인 조림산에서 물러나 의성 - 청송 방향으로 패주하였고, 이후 전면적인 후퇴를 실시하면서 그 주력은 안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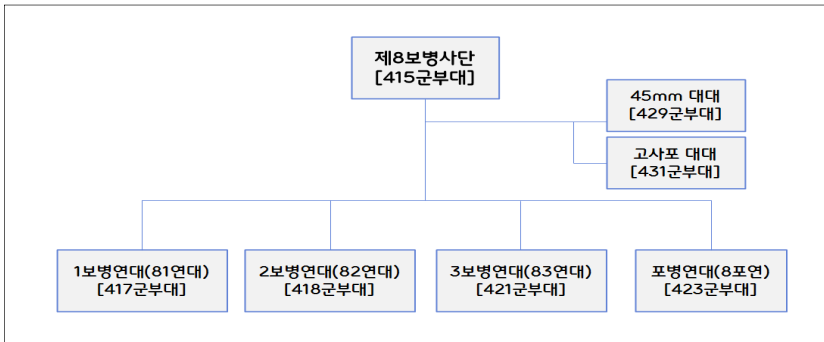
6)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제4권, 2008, p.225.; p.324; p.362.

7)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제5권, 2008, p.81.; pp.347-348.

- 영주 - 단양 방향으로 철수하였다.⁸⁾

이후 북한군은 10월 중순부터 청천강에 이르자 지연전을 구사했고, 1950년 10월 하순, 제1군단 소속으로 방어에 배치된 6개 사단 중 가장 전방에 배치되었다.⁹⁾ 1950년 10월부터 제8사단은 자강도 초산에 위치하고 있었다. 예하부대 중 위치가 정확히 확인되는 부대는 81연대 제2대대로, 1950년 11월 25일에 초산군 초산면 모단리에 위치하고 있었다.¹⁰⁾ 이곳에서 사단은 부대 재편성을 실시하였다.

〈표 1〉 북한군 제8사단 주요 부대



북한군 제8사단 포병도 조직적인 후퇴명령에 따라 1950년 10월 하순 초산에 부대가 집결하였고, 그 이후 부대정비 및 재편성을 진행하였다. 하지만 지휘관 및 포병대원들이 부족하여 11월 초순까지도 병력 충원만 진행되는 등 계획적으로 진행되지는

8)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제6권, 2009, p.263.; p.307.

9) 바자노프·바자노바, 『소련의 자료로 본 한국전쟁의 전말』, 열림, 1998, pp.100~101.

10) “중기중대 세포 제1차 회의(1950. 11. 25.)”, 『조선인민군 제8사단 제1련대 제2대대 세포 회의록』, 1951, RG 242, SA 2011, BOX 8, Item # 10. 이 논문에 나오는 지명을 모두 확인하지는 못했다. 확인가능한 것만 당시 지명 또는 현재 지명을 부가 설명하였다.

못하였다. 그러던 중 자강도 위원에서 조직되고 있던 제8사단 포병부대들을 즉시 집결시켰고, 초산과 위원 양 부대의 인원과 장비로 제8사단 포병의 기본적인 구성을 완료하였다. 그리고 해이해진 군기와 미흡한 상황들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신속한 과업인 전투훈련을 개시하였고, 11월 중순에는 상부 전투훈련 계획에 근거하여 실제 전투환경에 부합되는 훈련을 시작하는 비교적 조직된 부대가 되었다. 각급 지휘관들의 시범학습과 실습 학습을 준비하는 지휘관들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대대장, 중대장, 소대장들에게 군사적 전술 위주의 학습을 먼저 실시하였고, 부대전투훈련에서 양호한 성과를 거두었다. 기술병종훈련을 위해서는 유무선 통신, 정찰대원들에게 학습모임을 만들어 학습시킨 결과 이해도를 향상시킬 수 있었다. 약 20일이라는 단기전투정치훈련이었지만 양호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12월 2일 실시한 포실탄 사격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다.¹¹⁾

이렇게 재편성을 하는 동안 전황은 바뀌어 있었다. 인천상륙작전 이후 북진하던 UN군 및 국군은 1950년 10월 25일 중국인민지원군의 기습 이후 다시 남으로 후퇴하고 있었다. 서부전선의 미 제8군은 12월 4일 평양에서 철수했고, 12월 중순에는 38선 북방까지, 12월 말에는 임진강-연천-춘천 북방-양양을 연하는 38선까지 철수하였다. 동부전선의 미 제10군단과 국군 제1군단은 12월 14일부터 12월 24일間に 흥남에서 부산으로 해상철수를 진행하였다. 이에 따라 서부전선에서는 청천강을 넘어 평양을 점령한 중국인민지원군 제13병단이 12월 하순 개성-철원 북방까지 진출하였고, 동부전선에서는 장진호-함흥 축선에서 전투력을 상실한 중국인민

11) “초산에서 포병들의 구성상태와 훈련정형”, 『전투총결』, 1951, 제8사단 포병참모부, RG 242, SA 2013, BOX 1, Item # 52.

지원군 제9병단 대신에 북한군 제3군단, 제5군단, 그리고 제2전선부대인 제2군단이 동부전선으로 남하하여 38도선 북방에 전개하였다.¹²⁾

나. 사단의 제3차 전역 참전과 서울 진출

조중연합사령관 평덕화이(彭德怀)는 새로운 공세를 준비하면서 부대들을 남쪽으로 전진시켰다. 그러나 미군이 계속 남으로 철수하고 38선 이남까지 후퇴하자, 이미 최초 집결위치에 도착해 있던 부대들에 조정계획을 하달하였다. 휴식을 취한 뒤 계속 38선을 향해 전진하며 새로운 공세를 준비하도록 하였던 것이다. 이미 1950년 12월 23일, 서부전선의 부대들은 전 전선에서 38선에 근접하여 황해도 금천, 구화리¹³⁾, 연천, 철원, 화천 지구에 집결하였다. 북한군 제1군단(제8사단, 제17사단, 제19사단, 제47사단)도 38도선을 넘어 연안반도¹⁴⁾와 옹진반도를 점령하였다.¹⁵⁾ 이어서 북한군 제1군단은 임진강을 도하 후 문산과 파주방향으로 진출하였다.¹⁶⁾

평덕화이는 1951년 1월 3일, 북한군 제1군단에게 서울 서남, 김포, 인천 지구에 도착하여 방어를 담당하며, 특히 김포(비행장)를 점령하라고 지시하였다. 1월 4일 오후, 중국인민지원군 제39군 116사단과 북한군 제1군단이 서울을 점령하였고, 이어 여러 중국인민지원군 부대들이 각각 서울에 진입하였다.¹⁷⁾ 이후 평덕화이는 1951년 1월 5일 18시, 북한군

12)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제8권, 2011, pp.9-10.

13) 황해북도 장풍군 구화리

14) 황해남도 연안군 남부

15) 중국 군사과학원 군사역사연구부 저,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박동구)역, 『중국군의 한국전쟁사』 2,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5, pp.202-203.

16) 중국 군사과학원 군사역사연구부 저, 『중국군의 한국전쟁사』 2, p.278.

제1군단에게 서울 수비를 위한 1개 사단을 제외하고 주력은 김포를 탈취 점령하고, 또 기회를 보아 인천을 공격 점령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북한군 제1군단은 한강을 도하한 후 1월 8일까지 차례로 김포와 인천항을 점령하였다.¹⁸⁾

평터화이는 1951년 1월 8일을 기해 중동부 전선으로 침투 중이던 일부 북한군을 제외한 나머지 전군에 추격정지 명령을 내리고, 휴식과 정비에 들어갈 것을 지시했다. 그리고 부대 배치는 중국인민지원군 제50군과 중국인민지원군 제38군 제112사단이 한강 남안 교두보 진지를 장악하고, 중국인민지원군 제42군 제125사단이 남한강 동쪽에 위치하며, 북한군 제1군단의 2개 사단이 한강 이남에 위치하여 유엔군의 공격에 대비하라고 하였다.¹⁹⁾

북한군 제8사단도 자강도 초산 일대에서의 재편성을 마치고 제2차 공격을 위해 중국인민지원군의 후속부대로 남쪽으로 진출하였다. 초산군에 있던 81연대 2대대(대대본부, 4중대, 5중대, 6중대, 중기중대, 82mm 박격포 중대, 공급소대, 반총소대, 위생소대)의 경우 초산을 출발한 뒤, 1950년 12월 11일 평양 후방을 지났다.²⁰⁾ 부대는 12월 30일경에는 황해도 해주 전투를²¹⁾, 이후 황해도 연안 남산 고지²²⁾ 등에서 전투를 치렀으며, 이후에는 큰 전투 없이 서울까지 이동하였다. 그리고 1951년 1월 21일-28일 경기도 광주군 언주면 역삼리 웃방아다리²³⁾에 진출하였다.²⁴⁾ 북

17) 중국 군사과학원 군사역사연구부 저, 『중국군의 한국전쟁사』 2, pp.283-284.

18) 중국 군사과학원 군사역사연구부 저, 『중국군의 한국전쟁사』 2, pp.288-289.

19) 중국 군사과학원 군사역사연구부 저, 『중국군의 한국전쟁사』 2, pp.293-294.

20) “중기중대 세포 제3차 회의(1950. 12. 11.)”, 『조선인민군 제8사단 제1련대 제2대대 세포 회의록』.

21) “중기중대 세포 제4차 회의(1950. 12. 30.)”, 『조선인민군 제8사단 제1련대 제2대대 세포 회의록』.

22) 황해도 연백군 연안읍 시가지 중앙에 있던 산

23) 현 강남구 역삼동

한군 제8사단 사령부는 1951년 1월 22일 기준 상도동²⁵⁾까지 진출하여 위치하였다.²⁶⁾

다. 제8포병연대와 포병구분대의 행군

북한군 제8사단 포병부대들도 1950년 12월 3일 제2차 공격을 위한 전투행군을 개시하였다.²⁷⁾ 당시 제8사단 포병 계선의 주요 부대와 간부는 다음 표와 같다.

〈표 2〉 북한군 제8사단 포병의 부대와 주요 간부

부 대		주요 간부
사단 본부	지휘부	사단장 김봉문 ²⁸⁾ , 참모장 리항래
	포병참모부	포병부사단장 리도빈, 포병참모장 김용문
	수리소 및 창고	
	지휘중대	
사단직속 45mm 대대		부대장 김병두
사단직속 고사포대대		부대장 최원석
포병연대		부대장 전영현, 포병참모장 백남훈, 작전참모 리운택, 정찰참모 김순태

24) “중기중대 세포 제5차 회의(1951. 1. 25.)”, 『조선인민군 제8사단 제1련대 제2대대 세포 회의록』.

25) 현 동작구 상도동

26) 『명령, 최고사령관 명령 제0229호를 철두철미 집행할 데 대한 군단장 명령 이첩에 관하여』, 제8사단 사단장 김봉문, 1951. 1. 22., RG 242, no.202814.

27) “초산에서 포병들의 구성상태와 훈련정형”, 『전투총결』, 1951, 제8사단 포병참모부, RG 242, SA 2013, BOX 1, Item # 52.

28) 제8사단장 김봉문 소장은 형산강 전투 시 대좌 계급으로 제5사단 11연대장이었다.

81연대 포병구분대	부대장 백학립 ²⁹⁾ , 포병부 부연대장 신윤각 ³⁰⁾ , 포병참모장 김윤찬 ³¹⁾ , 포병공급장 박경선 ³²⁾ , 45mm 중대장 리기원 ³³⁾ , 76mm 중대장 김기호 ³⁴⁾ , 120mm 중대장 김기원 ³⁵⁾
82연대 포병구분대	포병참모장 서창수
83연대 포병구분대	포병부 부연대장 장종걸, 포병참모장 오종철

* 출처 : 노획문서 내용들을 직접 정리하여 작성

북한군 제8사단 포병의 최초 행군 출발 시 정확한 전투대원의 수를 나타내는 사료는 없지만, 행군 중이던 1951년 1월 3일 작성된 통계표를 통해 보면 정원은 3,032명이었는데 251명이 부족한 현재원 2,781명으로 정원대비 90.5%를 유지하고 있었다.³⁶⁾ 이 정도 충원율이라면 병력구성면에서는 짧은 기간 동안 최대한의 재편성을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다. 또한 1950년 12월 행군 간 손실이 소수였기 때문에 이 충원율은 거

29) 백학립 : 9급, 군번(66851), 1918년생, 소졸, 동북항일연군, 입대(1934 / 1946. 7. 23.)
군관임명(1946. 7. 23.). “백학립”, 『간부명단』, 81연대 참모부, 1951. 2. 10., NARA,
RG242, ATIS Document, No.202594; “백학립”, 『군관신분증발급등록부』, 81보련,
1951. 2., NARA, RG242, ATIS Document, No.202594.

30) 신윤각 : 7급, 군번(86431), 1927년생, 중졸, 입대(1947. 9. 27.) 군관임명(1949. 7.
15.). “신윤각”, 『간부명단』; “신윤각”, 『군관신분증발급등록부』.

31) 김윤찬 : 6급, 군번(66425), 1926년생, 소졸, 입대(1946. 10. 7.) 군관임명(1950. 3. 1.).
“김윤찬”, 『간부명단』; “김윤찬”, 『군관신분증발급등록부』.

32) 박경선 : 6급, 군번(66427), 1926년생, 중졸, 입대(1948. 2. 10.), 군관임명(1948. 5.
5.). “박경선”, 『간부명단』; “박경선”, 『군관신분증발급등록부』.

33) 리기원 : 4급, 군번(66428), 1928년생, 소졸, 입대(1947. 10. 14.), 군관임명(1950. 8.
5.). “리기원”, 『간부명단』; “리기원”, 『군관신분증발급등록부』.

34) 김기호 : 6급, 군번(66435), 1922년생, 소졸, 입대(1946. 10. 24.), 군관임명(1950. 6.
23.). “김기호”, 『간부명단』; “김기호”, 『군관신분증발급등록부』.

35) 김기원 : 6급, 군번(66434), 1925년생, 입대(1947. 2. 15.). “김기원”, 『간부명단』; “김
기원”, 『군관신분증발급등록부』.

36) “포병전투성원 통계표”, 제8사단 포병참모장 김용문, 『전투총결』, 1951, 제8사단 포병
참모부, RG 242, SA 2013, BOX 1, Item # 52.

의 유지되었다. 다음 표는 행군 과정인 1951년 1월 3일 자 부대별 병력을 정리한 통계 현황이다.

〈표 3〉 포병전투대원 통계표

직급별	구분	포병 참모 부	수리 소 창고	지휘 중대	45m m 대대	고사 포대 대	포병 연대	1연 대	2연 대	3연 대	계
군관	정수	10	3	5	36	47	130	40	40	40	351
	현수	10	3	5	32	22	120	40	41	41	314
	부족				4	25	10		+1	+1	37
하사관	정수	2	6	31	93	146	276	147	147	147	995
	현수	2	7	16	93	78	250	149	145	141	881
	부족		+1	15		68	26	+2	2	6	114
전사	정수		4	43	123	268	520	246	246	246	1,696
	현수		2	48	117	77	479	295	288	293	1,596
	부족		2	+5	6	191	41	+46	+42	+47	400
계	정수	12	13	79	252	461	926	433	433	433	3,042
	현수	12	12	69	242	177	849	481	474	475	2,791
	부족		1	10	10	284	77	+48	+41	+42	251

* 출처 : “포병전투성원 통계표”, 제8사단 포병참모장 김용문, 『전투총결』, 1951, 제8사단 포병참모부, RG 242, SA 2013, BOX 1, Item # 52.

무기 및 장비는 당연히 부족할 수밖에 없었다. 다음 표는 행군 중이던 1950년 1월 3일 기준 무기의 통계 현황이다. 인

원 대비 현저하게 부족함을 알 수 있다.

〈표 4〉 무기 및 기재 통계

구 분	정 수	현 수	부족수
12.7mm 고사기관총	36	18	18
14.5mm 반총	108	96	12
76mm 사단포	12	5	7
82mm 박격포	81	5	76
120mm 박격포	18	1	17
122mm 곡사포	12	6	6

* 출처 : “무기 기재 통계(행군 중)”, 『전투총결』, 1951, 제8사단 포병참모부, RG 242, SA 2013, BOX 1, Item # 52.

1950년 12월 3일 19:00 초산을 출발한 제8사단 포병부대들은 12월 4일 남면 남하창, 12월 5일 영가덕, 12월 6일 운산³⁷⁾, 12월 8일 평화리³⁸⁾, 12월 12일 서포³⁹⁾, 12월 13일 자지동, 12월 18일 옷가장, 12월 19일 사리⁴⁰⁾, 12월 20일 송탄동⁴¹⁾, 12월 25일 부저동, 12월 26일 흥동, 12월 27일 기복동, 12월 29일 조제궁⁴²⁾, 1951년 1월 1일 효천동⁴³⁾, 1월 4일 금릉리⁴⁴⁾, 1월 5일 부석골⁴⁵⁾, 1월 7일 싸리마을⁴⁶⁾, 1월 8일 장춘당⁴⁷⁾, 1월

37) 평안북도 운산군 운산면

38) 평안북도 영변군 팔원면 평화리, 현 영변군 팔원면 송화리

39) 평양시 서포(西浦)

40) 황해북도 사리원시 사동, 현 사리원시 원주동

41) 황해남도 재령군 은룡면 창전리

42) 황해남도 청단군 인근 추정

43) 경기도 개풍군 개풍면 인근 추정

44) 경기도 장단군 진서면 금릉리, 현 파주시 진서면 금릉리

45) 경기도 파주군 광탄면 부석동, 현 분수리

46) 경기도 고양군 신도면 인근 추정

47) 서울시 중구 소재

9일 상성후⁴⁸⁾, 1월 12일 03:00에 박제궁⁴⁹⁾에 도착 완료하였다. 총 행군일수는 27일이고 총거리는 558km였으며, 일일 평균 행군거리는 23km였다. 북한군 제8사단 포병의 행군은 야간행군으로만 이루어졌고, 저녁에 각 출발지점을 출발하여 다음 날 새벽에 도착지점에 도착하였다.⁵⁰⁾ 임진강은 1월 5일과 6일 경에 도하였고, 한강은 1월 8일부터 1월 12일 경까지 도하였다.⁵¹⁾

행군을 시작하는 부대들은 군사적·정치적인 다짐 속에서 행군을 개시하였다. 각 부대 및 구분대, 중대, 소대, 분대에 이르기까지 각종 형식의 회의를 통하여 행군 계획과 자기 결의를 표시하였다. 그중에서 포병연대 5중대 1포와 45mm 대대 지휘소대 정찰분대가 가장 우수했으며, 구분대별로 우수한 부대는 45mm 대대였다. 행군 시에는 지휘관과 문화담당자들이 전사들의 곤란한 문제를 해결해주고 피곤을 풀어주면서 비교적 원활한 행군이 되게 하였다. 또한 모든 대원들에게 무기의 소중함을 강조하였다. 83연대 포병구분대가 가장 우수하였는데 행군으로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숙영지에 도착하면 무기부터 점검하고 손질한 결과 무기를 항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관리하였다. 행군 중에는 지역주민들에게 직접적인 정치교육도 병행하였다. 주민들의 규율을 강화하며 행정기관을 조직하여 주며 각종 담화 및 회의를 할 수 있게 지원했으며, 탈곡과 청소 등도 도와주었다.⁵²⁾ 이를 통해 보면, 재편성된 부대로 아직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전투의지와 무기관리 정신 등은 높았

48) 경기도 시흥군 신동면 상성후, 현 서초구 방배동

49) 현 관악구 봉천동

50) “초산 출발 후 서울까지 행군 총결”, 『전투총결』, 1951, 제8사단 포병참모부, RG 242, SA 2013, BOX 1, Item # 52, p.1.

51) “사고발생에 대한 종합통계”, 『전투총결』, 1951, 제8사단 포병참모부, RG 242, SA 2013, BOX 1, Item # 52.

52) “초산 출발 후 서울까지 행군 총결”, 『전투총결』, 1951, 제8사단 포병참모부, p.2.

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전선으로의 단순 이동을 위한 행군에 그친 것이 아니라 이른바 민사작전도 병행 실시한 것은 당시 상황에서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원래 북한지역이었지만 몇 달 동안 국군 및 UN군이 관할하던 지역이었기에 북한군 입장에서는 북한 주민들에 대한 정치교육은 필수였다.

하지만 행군간 결점도 많았다. 전투의지가 높았고 지휘관들의 솔선수범과 무기관리 정신이 높았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재편성된지 얼마 안된 부대였기 때문에 실질적인 전술 및 행동에서는 미흡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먼저 행군 도중에 대원들에 대한 교육이 부족하였다. 특히 전술적으로 중요한 지형연구와 행군서열 조직에 대한 교육이 미흡하여 행군을 장시간 하였음에도 지휘관이 행군을 규정대로 조직할 줄 몰랐고, 전사들도 자기 임무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다. 구분대에서는 행군경로 숙지 및 반항공 대책이 미약하였다. 그 예로 포병연대 2대대 군사부대대장이 책임진 자동차 1대, 122mm 곡사포 1문은 상부에서 지시한 경로로 이동하지 않고 박천군 동남면 맹중리로 오다가 기총사격 및 폭격을 당하여 군관 2명 하사 1명 전사 7명이 희생되고, 군관 1명 하사 3명 전사 3명이 부상하기도 하였다. 일부 지휘관은 부대를 인솔 및 동원시키질 못하였으며, 심지어 부대에서 이탈하는 큰 잘못도 저질렀다. 82연대 부연대장은 평양계선에서 3일간이나 부대에서 이탈하여 복귀하지 못하였고, 심지어 도착 이후에도 아무런 보고조차 없었다. 도하에 대한 주도면밀한 정찰과 계획 점검이 없었으며, 특히 포병연대 2중대장은 자동차를 임진강에 빠뜨려 손실하기까지 하였다. 행군 중에 행군명령을 시행할 줄 모르는 상황도 있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참모업무가 미흡하였기 때문이었다. 실례로 신악계선에 도착할 때 포병연대 2, 3대대는 날이 밝았다는 이유로 지정 지점보다 2km를 떨어진

곳에서 숙영하였다. 결론적으로 처음 실시한 장기 행군이므로 각급 지휘관 및 참모부에서는 행군조직이 부족하였다고 할 수 있었다. 특히 지휘관의 행군인원 장악이 부족하여 행군 중 낙오자와 심지어는 실종자까지 발생하는 등 행군질서가 유지되지 못하였으며, 심지어는 지휘관까지 부대에서 이탈하는 현상이 발생하였던 것이다.⁵³⁾ 행군 간 인명손실도 있었는데 군관 6명 포함 총 33명이었다.⁵⁴⁾ 부대별 현황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 5) 병력손실 통계

구분	계급	45mm 대대	고사포 대대	포병 연대	1연대	2연대	3연대	계
사망	군관			2				2
	하사관					1		1
	전사			2				2
	계			4		1		5
부상	군관	1	1	2				4
	하사관	1		4	3	2		10
	전사	3		5	3	3		14
	계	5	1	11	6	5		28
계	군관	1	1	4				6
	하사관	1		4	3	3		11
	전사	3		7	3	3		16
	계	5	1	15	6	6		33

* 출처 : “손실통계(행군과정)”, 『전투총결』, 1951, 제8사단 포병참모부, RG 242, SA 2013, BOX 1, Item # 52.

1950년 12월 3일 행군출발 후 1951년 1월 14일까지 총 11건의 사고가 발생하였다.⁵⁵⁾ 사고 내용을 살펴보면 경계 근무 중

53) “초산 출발 후 서울까지 행군 총결”, 『전투총결』, 1951, 제8사단 포병참모부, pp.2-3.

54) “손실통계(행군과정)”, 『전투총결』, 1951, 제8사단 포병참모부, RG 242, SA 2013, BOX 1, Item # 52.

55) “사고발생에 대한 종합통계”, 『전투총결』, 1951, 제8사단 포병참모부, RG 242, SA 2013, BOX 1, Item # 52.

항공기에 의한 전사 등 불가피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부주의나 지시불이행 등으로 인한 것이다. 이 또한 부대 재편성으로 인한 미흡함이라고 볼 수 있다. 세부내용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 6〉 행군간 사고현황

부 대	일시	장 소	손실	사유 및 조치
포병연대 1대대	1950년 12월 31일 12:30	문곡동	자동차 1, 122mm 곡사포탄 40발 연소	포병부사단장이 포병연대 1대대 상급부관에게 17:00까지 사격실시를 명령 ⇒ 상급부관은 포탄과 자동차 은폐에 대하여 2중대 정치부중대장과 화력소대장에게 지시 ⇒ 지시를 따르지 않아 항공기에 발견되어 습격당함.
포병연대부	1950년 12월 28일 05:00	금천 ⁵⁶⁾ 남방	희생(군관 1), 중상(군관 2, 전사 1)	포병연대장이 개성 전방을 지형정찰하고, 행군 2개 대대의 숙영지인 고덕동에 갔다 복귀 중 ⇒ 금천방향 약 3~4km 지점에서 피난민 우차와 충돌하여 소형지프가 전복. 희생 군관은 인근 매장, 중상 군관은 사단 군의소 입원, 중상 전사는 연대 군의소 치료
1연대 포구분대 120mm 중대	1951년 1월 1일 19:30	개풍군 개풍면 지내리 부근	중상(하사 2, 전사 1), 경상(하사관 1, 전사 2)	어두워진 상황에서 포진지로 진입하던 중, 돌로 갈라지고 좁고 작은 길에서 전복됨. 부상자는 개풍군 대성면 분주소서원과 지내리 서기장에게 위탁하여 치료하게 함.
포병연대 1대대 1중대	1951년 1월 5일	척만리	희생(전사 1)	전사 김훈춘은 은폐시킨 포에서 보초 중 ⇒ 내습 비행기의 기총사격에 어깨를 관통. 시신은 군의소에 후송하여 처리.

56) 황해북도 금천군 금천면

포병연대 1대대 1중대	1951년 1월 5일	임진강 계선에서	희생(군관 1)	임진강 도하장으로 차량 소동한 채 포를 끌고 진입 ⇒ 차량 전 복되어 문이 파괴되고, 소대장 김방호가 희생. 시신은 즉시 후송하여 매장함.
고사포 대대	1951년 1월 5일 20:30	경기도 파주군 조리면 상곡리 음골	중상(정치부 선전원 군관 1)	자기 권총 오발사고로 손에 중상 입음. 자체 군의대대에서 치료.
45mm 대대	1951년 1월 7일 1:00	고양군 신도면 연사림	중상(군관 1, 하사 1, 전사 1), 경상(전사 2)	숙영 후 후위병으로 나오던 중 길을 헛갈림 ⇒ 중대장이 주의 주었으나 5소대장은 잘못된 길 로 나가다 지뢰를 밟음. 사단 군의소에 후송하여 치료하 게 함.
2연대 포구분대 45mm 중대	1951년 1월 6일 11:30	고양군 신도면 지축리	희생(하사관 1), 중상(하사관 1, 전사 1) 경상(하사 1, 전사 2)	행군 목적지로 오던 중 지뢰 폭발. 희생자는 매장, 부상자들은 1군단 야전병원에 입원.
포병연대 1대대	1951년 1월 6일	임진강	희생(전사 1), 122m 포탄 50발, 76mm 포탄 51발, 고사총탄 6상자, 고사총 1, 포대경 1, 교환기 1, 전지함 2, 지도함 2, 백미 6	전날 20:00 포병연대장이 대대장 및 정치부대대장에게 짐을 내리고 도하하라고 지시 ⇒ 대대장은 상부 보고를 이유로, 정치부대대장은 포 를 인도한다는 이유로 임진강 후방 에 있었음 ⇒ 빙상도하는 2중대장 강원현이 책임지고 건너다 침몰.
포병연대	1951년 1월 8일 야간	두만리 ⁵⁷⁾ 계선	중상 8, 중카 1대	두만리를 지나던 중 지뢰 폭발. 군의소에 후송하여 치료하게 함.

57) 경기도 광탄면 두만리, 현 신산리

포병연대	1951년 1월 12일	한강	견인차 1대 파손	군단 공병이 가설한 도하 교량을 건너다가 다리가 물속으로 가라앉아 좌측 바위가 물에 빠짐 ⇒ 1월 14일 공습으로 엔진 파괴.
------	--------------------	----	-----------	--

* 출처 : “사고발생에 대한 종합통계”, 『전투총결』, 1951, 제8사단 포병참모부, RG 242, SA 2013, BOX 1, Item # 52.

행군 간 노획 또는 보급으로 추가된 장비 및 무기는 보총 37정과 탄알 24,320발, 기병총 2정과 탄알 755발, 자동총 1정과 탄알 74,880발, M1 총 1정, 38식 보총 1정, 76mm 사단포 2문, 122mm 곡사포 3문, 고사총탄 170발, 신호탄 6발, 수류탄 2발, 전화기 1개, 권선기 30개, 쌍안경 4개, 조준경 3개였다.⁵⁸⁾ 최초부터 무기 및 장비가 부족했던 제8사단 포병부대들에게 이것들은 귀중한 전투자산이 되었다.

3. 북한군 제8사단의 제1차 서울방어전투

가. 전투준비 : 군사규율 강화 및 단기전투정치훈련

김일성은 1950년 12월 29일 군대 내 군사규율 강화대책에 관한 명령인 최고사령관 0229호 명령을 하달하였다. 김일성은 조선인민군의 전투행동은 전사로부터 장령에 이르기까지 군사규율이 낮은 수준에 있음을 보였주었다고 하며, 육해군 전체 병력에 대하여 1951년 1월 25일까지 규율규정을 복구시키

58) “초산 출발 후 서울까지 행군 총결”, 『전투총결』, 1951, 제8사단 포병참모부, p.3.

고 그 인식정도를 다시 고치라고 하였다.⁵⁹⁾ 이에 따라 북한군 제1군단 군단장 리권무는 1951년 1월 14일에 “조선인민군 군사규율과 전투력 강화를 위한 사업계획표” 24개 항목을 비준하였으며,⁶⁰⁾ 1월 16일에는 제1군단 군단장 명령으로 군단 특별계획을 하달하였다.⁶¹⁾

북한군 제8사단도 1950년 1월 16일에 사단 계획서를 첨부하여 하달하며, 각 부대 및 구분대에서는 이 계획에 근거하여 자체 상황에 적합한 계획을 작성하라고 명령하였다.⁶²⁾ 또한 1월 22일에는 최고사령관 명령 0229호와 그를 집행하기 위한 사단 자체의 사업계획서를 절충하여 부대실정에 적합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철두철미하게 실천하라고 재강조하였다.⁶³⁾

김일성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북한군 제8사단 참모부는 1951년 1월 27일부터 2월 2일까지 검열을 하기로 결정하였고, 관련 명령을 1월 23일에 하달하였다. 1월 27일과 28일은 2연대와 3연대를, 1월 29일과 30일은 1연대와 포병연대, 2월 1일에는 사단직속 구분대를 검열하여 장단점을 지적하고, 2월 2일에 사단 관하 중대장 이상급 간부를 소집하는 총결을 하기로 했다. 검열 총책임자는 사단 참모장이며, 제1조 책임자는 사단참모장 제2조 책임자는 사단정치부장

59) 『명령 제0229호, 각 부대 및 연합부대에 있어서의 군사규율상태와 그의 강화대책에 관하여』, 최고사령관 김일성, 1950. 12. 29., RG 242, no.202815.

60) 『조선인민군 군사규율과 전투력강화를 위한 사업계획표』, 제1군단 정치부장 김경석, 1951. 1. 14., RG 242, ATIS Document, no.202814.

61) 『명령, 최고사령관 명령 제0229호 이첩에 관하여』, 제1군단 군단장 리권무, 1951. 1. 16., RG 242, ATIS Document, no.202814.

62) 『명령, 최고사령관의 0229호명령 실천에 대하여』, 제8사단 사단장 김봉문, 참모장 리항래, 1951. 1. 16., RG 242, ATIS Document, no.202814.

63) 『명령, 최고사령관 명령 제0229호를 철두철미 집행할 데 대한 군단장 명령 이첩에 관하여』, 제8사단 사단장 김봉문, 1951. 1. 22., RG 242, ATIS Document, no.202814.

으로 임명하였다.⁶⁴⁾ 검열계획은 전투준비상태, 부대규율, 내무생활, 참모부사업(대열, 통신, 공병, 기무, 기요, 모병, 후방, 위생, 정치문화 등), 반항공대책(사냥군조), 무기취급과 보관 등에 대해 세부적으로 준비되었다.⁶⁵⁾

비슷한 시기, 행군을 마치고 전투준비를 하던 북한군 제8사단은 “단기전투훈련 강령”을 하달하여 전투력을 향상시키려고 하였다. 기간은 1951년 1월 24일부터 2월 8일까지 24일간을 학습일로 정하며, 각 부대 및 구분대의 일일 학습시간은 8시간으로 하되 자동차 및 기계화 구분대 운전수들은 매일 2시간씩 정비시간으로 할당하게 하였다. 전사 및 하사들의 정치학습시간은 화요일, 금요일에 2시간씩 하게 하였다. 단기전투훈련의 교육방식은 간단한 설명과 행동 시범을 보인 뒤,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동작으로 실시하게 하였다. 훈련과목은 정치훈련, 전술훈련, 사격훈련, 제식훈련, 체육훈련, 규율규정, 내무규정, 공병훈련, 군사지형학, 특별훈련, 위생훈련, 지휘관 예비시간으로 구분하여 각각 구분대에 맞게 배정하게 하였다.⁶⁶⁾

나. 공산군의 제4차 전역 준비와 북한군 제8사단의 전선 투입

1951년 1월 27일, 북한군 제1군단은 서울에 위치하고 있었다. 조중연합사령부는 전황분석에 따라 미 제1해병사단이 1월 24일 부산으로부터 안동에 도착하였으며, 국군부대들은 부여, 조치원, 안동, 문경 일대에 신방어선을 구축하고 있으

64) 『명령 No.3』, 제8사단 사단장 김봉문, 참모장 리항래, 1951. 1. 23., RG 242, ATIS Document, no.202814.

65) 『검열계획표』, 제8사단 참모부, 1951. 1. 23., RG 242, ATIS Document, no.202814.

66) 『단기전투정치훈련강령, 1951.1.24.~1951.2.18.』, 제8보사 참모부, 1951. 1., RG 242, SA 2012, Item # 160.

며, 삼척에 있던 수도사단은 물자를 이동시키고 있다고 보았다. 또한 UN 해군을 증가시키고 상륙을 도모하는 등 새로운 공격을 기도하고 있다고 파악하였다. 이를 근거로 하여 각 부대는 정찰을 강화하는 한편 적정에 대해 즉시 보고할 것이며, 경각심을 제고하여 언제든지 전투에 동원될 수 있도록 전투력을 강화할 것이 강조되었다.⁶⁷⁾

북한군의 전황 평가에 따르면, 1951년 1월 25일부터 UN군이 전투력을 총동원하여 전면적인 공격을 개시하였다. 북한군 제1군단 정면에는 미 제25사단, 국군 제1사단, 영국군 제29여단, 터키여단이 공격 제1단계에는 서울을 점령하고, 제2단계에는 38선까지 진출할 기도로 공격하였다.⁶⁸⁾ UN군은 특히 수원 방향에 중점을 두고 공격하였다. 이에 따라 조중연합군 사령부는 한강 남안 방어를 매우 중시하였다. UN군의 공격이 시작된 후 여러 차례 중국인민지원군 제50군과 중국인민지원군 제38군 제112사단에 지시하여 한강 남안 진지를 확보하고 차후 공세에서의 전진기지로 삼고자 하였다.⁶⁹⁾ 하지만 1951년 1월 말과 2월 초까지 약 10일간 주야간전투에서 UN군 포병의 절대적인 우세, 전차와 공군 화력의 격렬한 공격을 받아 사상자가 많았다. 이에 따라 한강 남안의 진지를 확보 유지하고, UN군의 주요 부대를 계속 견제하고 중국인민지원군 주력이 동부전선에 집결하여 반격을 할 수 있도록 조중연합군사령부 사령관은 중국인민지원군 제50군의 방어정면을 축소하고 중심방어능력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1951년 2월 4일 13시 반, 북한군 제1군단을

67) 『적정 통보에 관하여』, 제1군단 참모부, 1951. 1. 27., RG 242, ATIS Document, no.202812.

68) “전투총결보고(수리산 전투)”, 『서울방어전투 수리산, 마산』, 1951. 2. 25., 제415군부대 포병참모부, RG 242, SA 2013, BOX 1, Item # 52, p.1.

69) 중국 군사과학원 군사역사연구부 저, 『중국군의 한국전쟁사』 2, p.350.

중국인민지원군 제50군이 방어하고 있던 남태령, 과천, 군포장 일선 서쪽의 14km의 정면방어 임무를 원래대로 교대하도록 하고, 2월 5일 저녁에 교대를 완료하였다.⁷⁰⁾ 이에 따라 북한군 제8사단이 수리산, 마산을 담당하게 되었다. 이 서울방어전투(수리산, 마산)에서 북한군 제8사단은 치열한 전투를 전개하였던 것이다.

국내 공간사에 따르면 수리산-마산 전투에는 미 제25사단 35연대와 터키여단이 투입되었고, 1951년 1월 31일부터 2월 6일까지 중국인민지원군 제150사단과 공방전을 벌였다. 수리산은 중요한 감제고지로 UN군이 서울을 탈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리산과 관악산을 우선 점령하여야만 했다. 이에 따라 미 제25사단은 1951년 1월 31일 아침, 서쪽으로부터 터키여단이 소사 방면으로, 미 제25사단 35연대(전차 1개 중대 포함)가 주공으로 수리산을, 우측에는 국군 15연대가 모락산 방향으로 병진하여 수리산을 탈취한다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리고 1월 27일부터 이틀간 공격준비를 완료한 후 1월 31일 07시 30분을 기해 50분간의 공격준비사격을 실시 후 일제히 공격을 개시하였다. 당일 제1선 진지인 대야동 250고지와 용호동 210고지를 탈취하였으나, 제2선인 253고지는 좌절되었다. 다음 날인 2월 1일, 미 35연대는 터키여단과 수리산을 공격하라는 명령을 하달받았다. 미 35연대는 삼성의 무명고지와 227고지에서 공격을 시작하여 253고지를 점령하였고, 터키여단은 205고지와 75고지에서 전개하여 수리산 서쪽 기슭의 무명고지를 점령하였다. 2월 2일, 미 35연대는 일제 공격에 나서 수리산을 점령하였고, 터키여단도 수리산 서쪽의 440고지와 431고지를 탈환하는데 성공하였다. 하지만 중국인민지원군의 야간 역습이 있었고,

70) 중국 군사과학원 군사역사연구부 저, 『중국군의 한국전쟁사』 2, pp.352-353.

수리산 정상의 미 35연대 E중대는 다음 날 오전까지 치열한 백병전을 전개하고서 수리산을 끝까지 사수하였지만, 터키여단은 철수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미 제25사단에서는 사단 예비인 27연대 3대대를 투입하여 터키여단과 더불어 재공격을 실시하여 2월 6일 마침내 고지 점령에 성공하였다.⁷¹⁾

사료로 확인되는 사항에 따르면, 북한군 제8사단 81연대 본부는 1951년 2월 2일 슷돌리⁷²⁾에 위치하고 있었다.⁷³⁾ 그리고 서울방어전투에서 81연대는 2월 5일부터 7일까지 치열한 전투로 인해 많은 인명 손실을 보았다. 2월 5일에는 6중대장 장재운과 6중대 소대장 김정학 이상 2명이 전사했고, 3중대 소대장 리돈하, 3중대 소대장 전형필, 3중대 중기소대장 김경식, 4중대 소대장 유영남, 6중대 소대장 김창일, 6중대 중기소대장 조창진, 2대대 중기중대 소대장 홍상익, 9중대 소대장 남경섭 이상 8명이 부상했다. 2월 6일에는 3중대장 리민선과 1대대 45mm 소대장 강진근 이상 2명이 전사했고, 1대대 중기중대장 박팔용, 8중대장 김해문, 2중대 소대장 유기섭, 1대대 중기중대 소대장 오응규, 8중대 소대장 은양진, 9중대 소대장 현진영 이상 6명이 부상했다. 2월 7일에는 7중대 소대장 김기덕이 전사했고, 연대 직속 120mm 포 1소대장 김재한이 부상했다.⁷⁴⁾ 대대급에서 이 정도의 중대장 및 소대장의 손실은 매우 큰 피해였다. 아마도 다른 북한군 제8사단 예하 부대들의 피해도 매우 심각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중국인민지원군 제50군의 제2선 방어지대가 돌파되

71)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제8권, pp.240-244.

72) 부천군 소사면 천왕동 인근, 슷돌고개

73) 『명령』, 제81보련 련대장 백학림, 참모장 우양기, 1951. 2. 2., RG 242, SA 2012, no.75; 『통보』, 제81보련 참모장 우양기, 1951. 2. 2., RG 242, ATIS Document, no.202813.

74) 『편제직무』, 81보련, 1951. 2., NARA, RG242, ATIS Document, No.202594.

고, 한강 남안의 방어폭도 축소된 상황에서 중국인민지원군 제50군 주력과 북한군 제1군단 주력은 한강 남쪽 거점 상에 UN군 저지 및 지체를 위한 일부 병력만을 남긴 채, 1951년 2월 5일 저녁부터 강북을 향해 이동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2월 7일 저녁부터 북한군 제1군단은 4개 대대, 중국인민지원군 제50군은 1개 연대와 1개 대대 병력만을 남겨 한강 남안 교두보 진지를 통제하게 하고 나머지 주력은 한강 북안으로 철수하여 방어를 시작하였다.⁷⁵⁾ 북한군 제8사단도 이때 함께 한강 이북으로 철수하였고, 2월 9일 자 81연대 2대대 증기중대는 서대문구 세검정 홍지동에 위치하고 있었다.⁷⁶⁾ 그리고 한강 남쪽에 남아 있던 부대들은 1951년 2월 8일부터 18일까지 약 11일 동안 방어지역에서 완강하게 싸우다가 2월 16일에서 18일 사이, 계획에 따라 전부 한강 북안으로 철수하였다.⁷⁷⁾ 하지만 북한군과 25일간의 격렬한 진지전으로 UN군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20km만 진출한 채 한강을 사이에 두고 대치 상태가 되었다.⁷⁸⁾

다. 제8포병연대 및 포병구분대들의 화력지원과 ‘전투총결’

북한군 제8사단 포병부대 및 구분대들은 제1군단 포병사령관 명령에 따라 1951년 1월 28일 18:00부터 전투임무를 접수하였다. 8포병연대 1대대와 2대대는 122mm 곡사포 6문과 76mm 사단포 5문, 견인기재로 자동차 5대와 소형전차 7대로 박제궁 계선을 출발하여, 1월 30일 06:00 부천군 소사면 천왕

75) 중국 군사과학원 군사역사연구부 저, 『중국군의 한국전쟁사』 2, pp.353-354.

76) “증기중대 세포 제7차 회의(1951. 2. 9.)”, 『조선인민군 제8사단 제1연대 제2대대 세포 회의록』.

77) 중국 군사과학원 군사역사연구부 저, 『중국군의 한국전쟁사』 2, p.354.

78) “전투총결보고(수리산 전투)”, 『서울방어전투(수리산, 마산)』, p.1.

리⁷⁹⁾ 계선에 집결완료하였다. 81연대 포구분대 120mm 박격포 1문은 자동차 1대로 운용하였고, 76mm 고사포대대에서는 고사 총 5문으로 제4차 전역에 참전하게 되었다.⁸⁰⁾

제4차 전역 준비 간 제8사단 포병연대 및 포병구분대의 화력조직과 배치는 다음과 같다. 북한군 제8사단 포병은 가용한 자산을 최대한 활용하여 UN군의 공격에 대비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7〉 제8사단 포병연대 및 포병구분대의 화력조직과 배치

일자	구분대 및 화기	배치	사격지시
1월 31일	1대대 2중대 122mm 곡사포 4문	43.900 09.000	안산계선에 사격방향
	2대대 6중대 122mm 곡사포 2문	44.0000 09.200	안산계선에 사격방향
	1대대 1중대 76mm 사단포 2문	46.500 14.600	수원가는 대도로 방향 사격
	1대대 1중대 76mm 사단포 1문	42.000 11.000	안산계선 사격
	1대대 1중대 76mm 사단포 2문	49.500 14.600	OP 35.00에 직사
2월 6일	1대대 1중대 76mm 사단포 1문 2대대 5중대 76mm 사단포 1문	48.500 08.300	OP 35.00 방축독 계선에 직사
	1대대 2중대와 2대대 6중대 122mm 곡사포 총 6문	51.200 09.400	은폐지대를 사격
2월 7일	81연대 포구분대 120mm 박격포 1문	로제리	영등포 방향을 사격
2월 8일	1대대 2중대와 3중대 122mm 곡사포 총 5문	62.800 18.200	영등포 계선을 사격
2월 12일	1대대 2중대와 3중대 122mm 곡사포 총 7문	62.800 18.200	영등포 방향을 사격

* 출처 : “전투총결보고(수리산 전투)”, 『서울방어전투(수리산, 마산)』, 제415군부대 포병 참모부, RG 242, SA 2013, BOX 1, Item # 52, pp.2~3.

79) 현 구로구 천왕동

80) “전투총결보고(수리산 전투)”, 『서울방어전투(수리산, 마산)』, p.1.

그리고 1951년 2월 8일부터 2월 23일까지의 서울방어전투에서 화력장비는 1대대 2중대 122mm 곡사포 4문과 3중대 122mm 곡사포 3문을 동원하였다.⁸¹⁾ 하지만 위와 같이 조직배치를 하였으나, 반항공대책이 일부 미흡하여 2월 6일에는 항공기 습격으로 포수 1명이 경상하고, 기총사격에 의해 포신이 관통되었으며, 포 1문은 사격을 할 수 없게 되었다.⁸²⁾

직사포진지는 UN군의 전차 및 보병들이 침입할 수 있는 위험지점에 배치하였으며, 전차가 500 ~ 600m 근처에 침입하면 사격하게 하였다. 특히 8포병연대 1대대 1중대 1포 포장 및 포대원 6명은 영등포 침입을 목표로 전차 60대와 자동차 80여 대로 공격을 시도한 UN군 기계화부대를 근거리까지 유인하여 선두 전차 2대를 파괴함과 동시에 다수의 전차에게 포탄을 명중시켜 급히 후퇴하게 만들었다.⁸³⁾

포병지휘관들은 보병지휘관과의 긴밀한 연락으로 적정을 잘 이해하고, 공격을 개시하기 전 제때에 공격사격과 위력 있는 화력으로써 보병들을 엄호했다. 또한 8포병연대 정찰참모는 정찰조를 조직하여 중국인민지원군과의 상호엄폐를 갖추고 지원군 정찰조와 함께 직접 중심에 침투하여 세밀한 정찰 자료를 수집하였다. 그리고 수리산 전투에 있어서 좌측 인접부대인 중국인민지원군 제50군의 밀접한 인접점을 확보하였으며, 반돌격하는 적에 대하여 긴밀한 신호 조직으로 적의 공격을 좌절시켰다.⁸⁴⁾

81) “전투총결보고(수리산 전투)”, 『서울방어전투(수리산, 마산)』, p.3.

82) “전투총결보고(수리산 전투)”, 『서울방어전투(수리산, 마산)』, p.3.

83) “전투총결보고(수리산 전투)”, 『서울방어전투(수리산, 마산)』, pp.4-5.

84) “전투총결보고(수리산 전투)”, 『서울방어전투(수리산, 마산)』, p.5.

또한 각급 포병지휘관들은 상급참모부와의 밀접한 연계를 가짐으로 제때 요구되는 포 화력을 운용할 수 있었다. 여러 형식으로 수집되는 정찰자료를 상급참모부에 반영시킴으로써 작전상 정확한 결심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적은 숫자의 포로써 대다수의 적 공격과 기계화부대의 진공을 좌절진압시켰다. 상급참모부와 각급 지휘원들 간에 연락은 무전 또는 전화로 원만히 실시되었으며, 직접인 연락병을 운용함으로써 상호연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⁸⁵⁾

제4차 전역의 전투에서 많이 이용된 무전응용에 있어서 상급참모부에서 하달된 암호일람표를 철저히 사용하여 비밀지휘를 유지하였으며, 유선통신에 있어서 직명암호와 전화대호를 사용하여 비밀지휘를 유지하였다. 탄약과 관련해서는 견인기재가 부족한 조건하에 제때 탄약을 운반하지 못하여 비무장한 구분대의 전투원들을 동원하여 탄약을 운반함으로써 76mm 사단포와 12.7mm, 14.5mm, 45mm 탄약을 보급하였다. 122mm 곡사포탄은 상급 병기부로부터 공급량이 적어서 제때 공급하지 못하여 곡사포 화력을 감소시켰다. 또한 탄약보관에 있어서 탄약엄폐호를 파고 보관하였으며, 시간적으로 엄폐호를 굴설하지 못할 경우에는 분산보관시킴으로써 탄약의 손실이 없었다.⁸⁶⁾

하지만 일부 지휘관들은 원만한 포사격 제원이 못되어 포탄을 많이 낭비한 사실이 있었다. 45mm 반중중대 2소대장은 전장을 이탈하면서 무기와 탄알을 버리기도 하였다. 그리고 상부 명령에 따라 한강을 도하하던 81연대 포병부연대장은 상황이 급하다고 하여 포를 묻으라고 명령한 사실과 자동차와 전차를 충돌시켜 사용불가능케 하고 포탄 40발을 버리고 온 사실도 있었다.⁸⁷⁾

85) “전투총결보고(수리산 전투)”, 『서울방어전투(수리산, 마산)』, p.6.

86) “전투총결보고(수리산 전투)”, 『서울방어전투(수리산, 마산)』, pp.6~7.

87) “전투총결보고(수리산 전투)”, 『서울방어전투(수리산, 마산)』, pp.8~9.

북한군 제8사단 포병이 1951년 1월 29일-2월 7일까지 수리산-마산 전투에서 얻은 성과는 전차 파괴 5대, 전차 고장 9대, 경폭격기 추락 1대, 보병 살상 110명이었다.⁸⁸⁾ 전투개시 이전 전투대원은 총원 2,948명에 현원 2,570명이었는데 378명(군관 정원 34명, 현원 313, 부족 31 / 하사관 정원 963, 현원 276, 부족 87 / 전사 정원 1,641, 현원 1,381, 부족 260)이 부족하였다.⁸⁹⁾ 세부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표 8〉 손실통계

정별	구분	포병 참모부	수리산 창고	지휘중대	45mm 대대	고사포 대대	포병연대	1연대	2연대	3연대	계
사망	군관						3	1		2	6
	하사관				6	1	6	2	8	8	31
	전사				2		3	1	10	11	27
	계				8	1	12	4	18	21	64
부상	군관						1	1	2	5	9
	하사관				1		2	1	13	12	29
	전사				1		5	5	10	26	47
	계				2		8	7	25	43	85
실종	군관							9			9
	하사관				2	1		54			57
	전사				1	1	2	76		6	86
	계				3	2	2	139		6	152
도주	군관										
	하사관										
	전사						1	1			2
	계						1	1			2
입원 환자	군관					2	2				4
	하사관				2	1				4	7
	전사			2	5	1	17	1		10	36
	계			2	7	4	19	1		14	47
계	군관					2	6	11	2	7	28
	하사관				11	3	8	57	21	24	124
	전사			2	9	2	28	84	20	53	198
	계			2	20	7	42	152	43	84	350

* 출처 : “손실통계”, 『서울방어전투 (수리산, 마산)』, 1951. 2. 25. 제415군부대 포병 참모부, RG 242, SA 2013, BOX 1, Item # 52, p.12.

88) “전투총결보고(수리산 전투)”, 『서울방어전투 (수리산, 마산)』, p.10.

89) “전투총결보고(수리산 전투)”, 『서울방어전투 (수리산, 마산)』, p.11.

이 중 수훈자는 국기훈장 3급이 12명(군관 11명, 하사관 1명), 전사명예훈장 1급이 18명(군관 3명, 하사관 10명, 전사 5명), 전사명예훈장 2급은 61명(군관 4명, 하사관 24명, 전사 33명), 군공메달이 283명(군관 55명, 하사관 130명, 전사 98명)이었다.⁹⁰⁾ 그리고 전투가 끝난 뒤에 손실은 총 350명이었다.

4. 결론

이 논문에서는 그동안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던 북한군 제8사단의 초산에서의 재편성과 이른바 ‘제2차 공격’을 위한 남으로 이동, 그리고 수리산과 마산에서 수행하였던 서울방어전투에 대해 살펴보았다. 1950년 10월부터 병력보충 등 재편성을 시작한 북한군 제8사단은 장비 및 화기는 현저하게 부족하였지만 병력은 거의 충원하였으며, 단기 집중교육훈련을 통해 전투력을 만들어갔다. 그리고 1950년 12월 초 상부의 지시에 따라 중국인민지원군을 후속하며 남으로 이동하였고, 약 27일에 걸친 이동 간에 평양, 해주, 연안을 거치면서 여러 전투를 수행하였다. 그 과정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민사작전도 병행하였다. 최종적으로는 서울을 거쳐 한강 이남을 방어하는 사단으로 선정되어 중국인민지원군과 함께 수리산-마산전투를 수행하였다. 노획문서라는 가치 있는 당시 사료를 통해 정확한 수치지들도 다양하게 정리하였으며, 북한군이 어떻게 전투를 준비하고 실행해 나갔는지를 실감나게 파악하였다. 더불어 행군과 전투를 끝내고 난 뒤 총결을 통하여 분석한 장단점까지 확인할 수 있었다.

90) “전투총결보고(수리산 전투)”, 『서울방어전투 (수리산, 마산)』, p.15.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의 공간사만 봐도 이번 연구에서 확인한 북한군 제8사단이 모습이 거의 반영되어 있지 않다. 예를 들어 수리산 전투 관련 공간사 기록에는 중국인민지원군만 전투에 투입된 것으로 기술되어 있다. 이런 상황은 앞으로 연구자들이 북한군의 세부 모습을 계속 살펴야 하는 이유가 된다고 본다. 따라서 북한군 제8사단에 대한 연구는 우리나라 공간사의 공백을 채워 나가는 데 있어 기반이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기초적인 연구는 당시 북한군이 수행한 전쟁수행방식을 하나씩 밝히는 것은 물론 6·25전쟁에 대한 연구를 더욱 내실화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림〉 북한군 제8사단 행군로



〈참고문헌〉

1. 사료

- 『간부명단』, 제81련대 참모부, 1951. 2. 10., NARA, RG 242, ATIS Document, No.202594.
- 『군관신분증발급등록부』, 제81련대 참모부, 1951. 2., NARA, RG 242, ATIS Document, No.202594.
- 『편제직무』, 제81련대 참모부, 1951. 2., NARA, RG242, ATIS Document, No.202594.
- 『적정 통보에 관하여』, 제1군단 참모부, 1951. 1. 27., RG 242, ATIS Document, no.202812.
- 『통보』, 제81보련 참모장 우양기, 1951. 2. 2., RG 242, ATIS Document, no.202813.
- 『명령, 최고사령관 명령 제0229호를 철두철미 집행할 데 대한 군단장 명령 이첩에 관하여』, 제8사단 사단장 김봉문, 1951. 1. 22., RG 242, ATIS Document, no.202814.
- 『명령, 최고사령관의 0229호명령 실천에 대하여』, 제8사단 사단장 김봉문, 참모장 리항래, 1951. 1. 16., RG 242, ATIS Document, no.202814.
- 『명령, 최고사령관 명령 제0229호 이첩에 관하여』, 제1군단 군단장 리권무, 1951. 1. 16., RG 242, ATIS Document, no.202814.
- 『조선인민군 군사규률과 전투력강화를 위한 사업계획표』, 제1군단 정치부장 김경석, 1951. 1. 14., RG 242, ATIS Document, no.202814.
- 『명령 No.3』, 제8사단 사단장 김봉문, 참모장 리항래, 1951. 1. 23., RG 242, ATIS Document, no.202814.
- 『검열계획표』, 제8사단 참모부, 1951. 1. 23., RG 242, ATIS Document, no.202814.

- 『명령 제0229호, 각 부대 및 연합부대에 있어서의 군사규률상태와 그의 강화대책에 관하여』, 최고사령관 김일성, 1950. 12. 29., RG 242, ATIS Document, no.202815.
- 『조선인민군 제8사단 제1련대 제2대대 세포 회의록』, 1951, RG 242, SA 2011, BOX 8, Item # 10.
- 『명령』, 제81보련 련대장 백학림, 참모장 우양기, 1951. 2. 2., RG 242, SA 2012, no.75.
- 『전투총결』, 제8사단 포병참모부, 1951, RG 242, SA 2013, BOX 1, Item # 52.
- 『서울방어전투 (수리산, 마산)』, 제415군부대 포병참모부, 1951. 2. 25., RG 242, SA 2013, BOX 1, Item # 52.

2. 저서 및 논문

- 국가보훈처, 『영국의 6·25전쟁 참전사』, 2016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제4권, 2008
- _____, 『6·25전쟁사』 제5권, 2008
- _____, 『6·25전쟁사』 제6권, 2009
- _____, 『6·25전쟁사』 제8권, 2011
- 바자노프·바자노바, 『소련의 자료로 본 한국전쟁의 전말』, 열림, 1998
- 중국 군사과학원 군사역사연구부 저,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박동구) 역, 『중국군의 한국전쟁사』 2,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5
- 박희성, “북한군 제2보병사단의 6·25전쟁 초기 작전-전투일지, 함흥에서 낙동강까지,” 『군사』 110, 2020
- <http://doi.org/10.29212/mh.2020..116..1>
- _____, “북한군 제105땅크사단 65기보련 76mm대대의 참전준비와 전투 일지,” 『한국군사학논총』 11-1, 2022
- <http://doi.org/10.34166/rokms.2022.11.1.21>

(Abstract)

Preparation for the 4th Campaign of the 8th Division of the North Korean Army and the Battle of Surisan-Masan

Park, Hui-seong

Among the various methods of studying the Korean War, the study of the North Korean Army is essential. However, research is also difficult because of the difficulty in obtaining data. In the meantime, official publications have described the North Korean army's operations, but there were many deficiencies. Therefore, examining the details of the North Korean army is the basis of research and is also the direction to move forward.

In this paper, the 8th Division of the North Korean Army was identified. The 8th Division was expanded in July 1950, and after that, it was a major division that participated in major battles such as Andong and Sinnyeong. And even after the retreat, delaying battles were held in the Cheongcheongang area.

The 8th Division was reorganized in Chosan. Although there was a lack of equipment and firearms, the number of troops was almost completed, and short-term education and training increased combat power. After the reorganization, the 8th Division began marching southward in December 1950 for the second attack, and arrived south of the Han River in early January 1951. During the march, they fought in Pyongyang,

Haeju, and Yeonan, and civil actions were also conducted against the residents. And in late January and early February 1951, they fought UN forces together with Chinese forces in Mt. Surisan and Mt. Masan.

Such detailed basic research on units below the divisional level of the North Korean Army will help to uncover the way the North Korean Army conducted war one by one at the time, and research on the Korean War will become more substantial.

Keywords : The Korean War, The 8th Infantry Division,
North Korean Army, Korean People's Army,
Defense Battle of Seoul, Mt. Surisan, Mt. Masan.